

문화재청 공고 제2018-25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7. 24.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불상 3구,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2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불상 3구, 대좌 3점, 발원문 1점, 시주질 1점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3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金弘道 筆 三公不換圖)	1좌(8폭)	이** (삼성문화재단)
4	자치통감 권129~132 (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4권 1책	권** (대한불교조선종 성불사)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 지정명칭 :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99-30
- 수량 : 불상 3구,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
- 규격 : 불좌상 높이 140cm, 좌협시 131.5cm, 우협시 130cm
- 재질 : 목조
- 조성연대 : 1665년(현종 6)
- 제작자 : 희장(熙壯), 도우(道雨), 보해(寶海), 경신(敬信), 옥순(玉淳), 일훈(一訓), 신학(新學), 여상(呂尙), 도징(道澄)
- 사유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665년(현종 6) 희장(熙壯), 도우(道雨) 등 9명의 조각승이 합심하여 만든 불상으로, 가운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좌·우 각 1구의 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삼존불(三尊佛) 형식이다. 희장은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彫刻僧)으로, 쌍계사 불상은 그가 1660년대 중반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조성한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본존 석가여래와 좌우 협시보살상의 보존 상태와 도상의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 없이 완전한 편이다. 작품에 있어서도 신체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고, 무릎도 한결 넓고 높아졌으며 주름선도 얇고 간결해지는 등 희장 작품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양식과 미감(美感)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 밖에 후령통을 비롯한 복장유물이 안치 당시의 원 모습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발견되어 17세기 중·후반기 불상의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진도 쌍계사 삼존상은 제작연대, 조각승의 이름, 봉안처 등 조성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학술 정보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 또한 높아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길 1길
- 수량 : 불상 3구, 대좌 3점, 발원문 1점, 시주질 1점
- 규격 : 아미타여래 높이 225.0cm, 무릎폭 161.0cm, 연화대좌 35.5×197×169cm, 팔각대좌 109×240×223cm, 관음보살입상 높이 190.5cm, 연화대좌 36×101.5cm, 팔각대좌 56.5×137×137cm, 대세지보살입상 높이 197.5cm, 연화대좌 37.9×105cm, 팔각대좌 52×135×138cm
- 재질 : 목조
- 형식 : 삼존상
- 조성연대 : 1629년(인조 7)
- 제작자 : 현진(玄眞), 승일(勝一), 천민(天敏), 철행(哲行), 철의(哲義)
- 사유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이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물게 좌상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좌·우 입상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이 불상은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현진(玄眞)이 주도하여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29년(인조 7)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현진은 광해군비 장렬왕후(莊烈王后)가 발원한 자인수양사(慈仁壽兩寺)의 11존 불상 제작 시 전국의 조각승을 이끌어 17세기 조각사에서 가장 뚜렷한 자취를 남긴 승려 조각가이다.

이 불상은 듬직하고 온화한 얼굴과 무게감 있는 당당한 신체 표현 등 현진 특유의 조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17세기 전반 목조 불상으로 제작된 작품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완전한 형태의 불신(佛身)과 대좌(臺座)를 모두 구비하였고 지금까지 큰 변형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각가, 제작연대, 봉안사찰과 전각 등에 대한 온전한 내력을 갖추고 있고 현진이 제작한 현존 유일의 입상 작품일 뿐 아니라 시대적 조형 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술적, 학술적 가치 등 모든 면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不換圖)

- 지정명칭 :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不換圖)
-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0
- 수량 : 1좌(8폭)
- 규격 : 177.0×424.8cm
- 재질 : 비단에 수묵담채
- 형식 : 병풍
- 조성연대 : 1801년(순조 1)
- 사유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는 조선 후기 산수화·인물화·풍속화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한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가 57세인 1801년(순조 1)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이다. ‘삼공불환(三公不換)’은 전원의 즐거움을 삼공(三公)의 높은 벼슬과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송나라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시 「조대(釣臺)」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그림은 1801년 순조임금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하여 유후(留後)라는 호를 쓰고 한씨(韓氏) 성을 가진 인물이 만든 4점의 계병(袂屏) 중 하나로, 그림에 적힌 홍의영(洪儀泳, 1750~1815)의 발문에 의하면, 이 때 <삼공불환도> 외에 <신우치수도(神禹治水圖)>(2점), <화훼영모도(花卉翎毛圖)>(1점)도 함께 그려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삼공불환도’에 그려진 산수와 풍속 등 다양한 장면은 후한(後漢) 시대 중장통(仲長統)이 전원생활을 찬양한 「낙지론(樂志論)」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강을 앞에 두고 산자락에 위치한 대형 기와집과 논밭, 손님 차례 중인 주인장, 심부름 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낚시꾼 등을 곳곳에 그려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표현하였다. 김홍도는 「낙지론」의 내용을 조선 백성들의 생활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삼공불환도>는 풍속화와 산수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사선구도를 활용해 화면 전체에 역동감을 주었고 인물, 산수, 화조(花鳥)가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보물 제1393호로 지정된 <추성부도(秋聲賦圖)>(1805년)와 더불어 김홍도 말년의 창작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여러 분야에 두루 뛰어났던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역작이다.

□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 지정명칭 :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 소유자(관리자) : 권**(대한불교조선종 성불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396-11

- 수 량 : 4권 1책
- 규 격 : 36.7×24.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36년(세종 18) 경
- 사 유

‘자치통감 권129~132’는 1436년(세종 18)에 간행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판본 가운데 권129~132에 해당하는 책이다. 세종은 1434년(세종 16)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이 책의 간행을 명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1436년(세종 18년) 총294권 100책의 방대한 분량을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대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저술한 편년체 역사서로, 국정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역대 임금들이 많이 열람했던 책이다. 그러나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판본은 아직까지 전체 권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인출(印出) 발문이 없으나, 각 권의 제1장 제4행에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편집했음을 뜻하는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고 기 보물 지정된 『자치통감』 등과 서지 형태, 활자 서체 등이 유사하여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속한 권129 및 권130은 처음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1463년 간행 『자치통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사진2.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사진3.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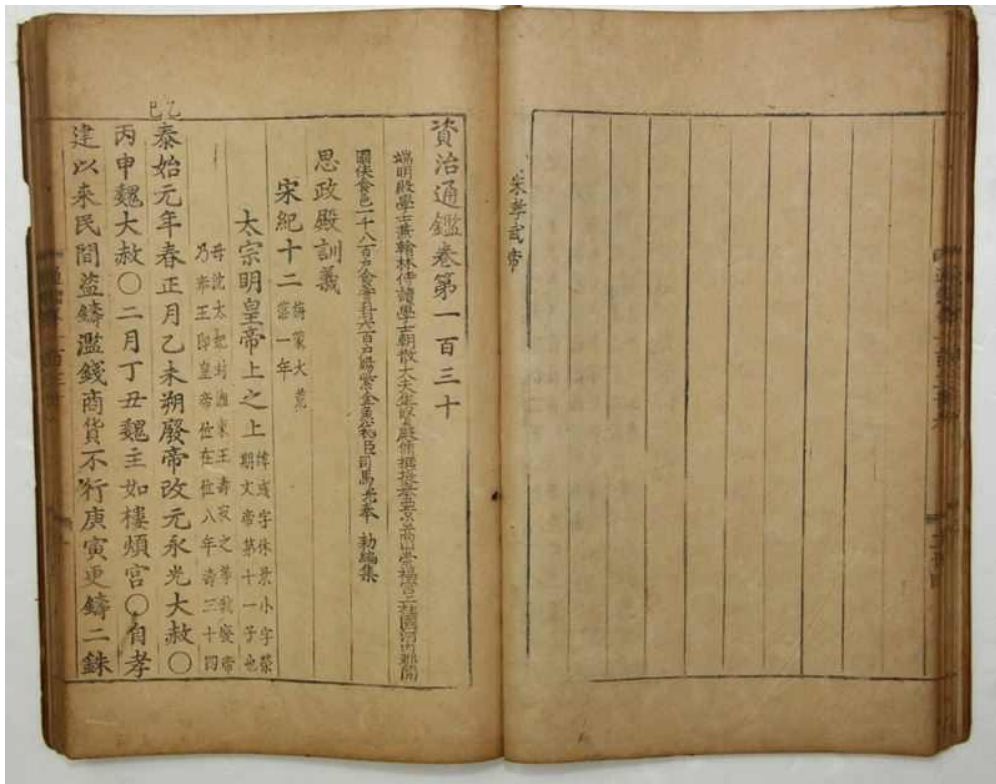


사진4. 자치통감 권129~132(권130)